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5월

선교편지 제 7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의 헌당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어서 주로 학교 교실과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격 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 이곳 저곳에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로 찾아 오는 주민들을 보노라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눈 앞에서 보는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닌 교회로 향한 복된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척박하고 마른 땅에 복음의 샘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시 107:35)

그동안 이곳에서 여러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사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느 곳에서든지 수 많은 어린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주된 까닭은 아이러니하게도 감당해야 할 어린이들이 너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역량만으로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고도 즐겁게 가르치고, 먹이며, 채워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장 가슴이 설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어린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꿈과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22~26에 제1회 어린이 성경학교 (VBS)를 실시했습니다. 교회가 창립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성경학교인 까닭에 거의 한달 전부터 많은 준비와 기도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와 보조 교사를 모집하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나이별로 3가지 종류의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간식과 점심 식사 메뉴도 준비하고, 학용품과 물품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성경학교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만들어 사전 등록을 받기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성경 학교를 준비하면서 꿈에 부풀 기대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 크고 작은 아이들의 '안전 사고'가 거의 매주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마다 아이들의 안전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비교적 키도 작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온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새로운 교회에 익숙해짐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 본연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내에서 사방 팔방으로 뛰어 돌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넘어지고, 부딪치고, 깨지고, 싸우고, 피나고, 울고..... 거의 매주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일이 많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부모나 주민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긴장하는 제가 더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비상 구급약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안전을 담당할 보조 교사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교회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어린이를 120명으로 제한하고, 많은 기대와 우려(?) 가운데 닷새 동안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찬양, 성경 암송, 율동, 간식, 게임, 공작, 점심 식사,..... 아이들의 기쁨이 넘치는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때, 어린 영혼 하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인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하는 복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1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힘을 합하여 새롭게 장만한 긴 테이블을 주저 앉히는 일이 있었지만, 많이 우려했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주간 동안 교회 전체가 섬김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기를 원하며, 디고스 예일 교회가 이 귀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 18:5)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대학으로 진학하는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익핏 고등학교와 스파마스트 대학의 학원 사역을 위하여
5. 주중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Day Care Center)
6.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7.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하여
8.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9.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과 학업을 위하여
10.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